

모험적 삶을 살다

사도행전 8:26-40

오늘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모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몇 주 전, 우버를 불렀습니다. 뒷좌석에 앉자마자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보니 육군 장교 아니면 교사이신 것 같군요?"

"음, 둘 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시나요?"

"목사입니다."

"어디서요?"

"월링턴입니다."

"월링턴! 지난 주말에 목사님 교회에 사람들을 내려줬는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 교황 취임식을 축하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차장이 정말 엉망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주차장 꼭대기까지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문 앞에서 내려달라고 하시네요!"

우버 운전기사와 저는 20분 동안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피 무슬림이지만 종교에 환멸을 느껴 실천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위대한 계명을 인용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예수님의 다른 말씀도 몇 가지 인용했습니다. 그는 흥미를 느낀 듯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음에 월링턴에 사람들을 내려주실 때는 방문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오세요.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에 월링턴에 오면 고객들에게 제가 그 목사님을 안다고 말할 거예요!"라고 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대화의 기회에 대해, 당신과 나는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은 부활절로부터 정확히 7주 후인 오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한곳에 모여 기도예 전념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조율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칠 수 없는 순간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10일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허처럼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계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폐에 바람이 불고 혀에 불이 붙었을 뿐입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자신들은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는 여러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임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설교를 하며 군중에게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3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 바람이 불면 마치 집에 불이 붙은 것처럼 움직여라.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함께 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박해 때문에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은 듣고 믿었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대규모 운동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백인 사마리아인들의 추수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요한복음 4장; 사도행전 1:8).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26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은 그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26절). 예루살렘과 가사 사이의 길로 가십시오(그림).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가는 길에서 사막으로 가기 전 마지막 물 공급지입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전부입니다. 그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도시에서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일부만 얻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마치 집에 불이 난 것처럼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빛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합니다. 순종은 이야기의 다음 부분을 살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만약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3일이 걸릴까요, 아니면 3초가 걸릴까요? 우리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풍속으로 성장합니다!

27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은 가사로 가는 길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본문은 실제로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한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고대 누비아 왕국 구스(사진) 출신의 에티오피아 사람, 흑인 아프리카인, 여왕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궁정 관리가 네 바퀴가 달린 마차인 병거에 앉아 있습니다. 누비아 왕국 구스는 철 제련과 금 채굴로 부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더 큰 틀 안에서 사도행전 8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어지는 이동이 있습니다. 유대인(그리고 그리스인과 로마인)에게 에티오피아는 문자 그대로 지구의 남쪽 끝에 있었습니다.

내시는 누구였을까요? 내시는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종종 본인의 동의 없이 거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은 통치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실의 안전한 하인으로 만들기 위해 종종 거세되었습니다.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여러 고대 사회에서 흔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거세는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기억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방인(비유대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한다면, 어디에서 시작하시겠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되시겠습니까?

2. 바람이 어떻게 불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다

두 형제인 구스타보와 앙드레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구스타보는 변호사였고, 앙드레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3개월 정도 한 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구스타보가 말했습니다.

"레이, 우리 법률 사무소에서 파티를 열 건데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파티예요, 오실래요?"

"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파티 당일, 저는 사무실에서 파티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이, 가. 이 가족 중에 내 가족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법률 사무소는 높은 벽과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터콤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매우 특이한 차림의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막내딸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해 했습니다. 우리는 파티가 열리는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가족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몇 명 있었지만,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시작된 지 한 시간쯤 되었을 때, 구스타보는 음악을 끄고 군중에게 "레이가 우리에게 줄 크리스마스 말씀이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가요?" 복음을 전할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순절 주일 미사 성가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몇 분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이게 뭐였지? 하나님, 오늘 아침 이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제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라고 생각했던 것은 기억납니다.

몇 달 후, 앙드레의 아내가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앙드레와 아이들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스타보의 아내도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차려입은 남자"를 초대해서 파티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어디에서 시작하셨을까요? 다섯 번 결혼하고 여섯 번째 결혼을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 너머로 전해진 최초의 이방인(비유대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내시와 함께 병거에 오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시는 예배를 위해 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값비싼 순례를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예배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믿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와 닮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비유대인이었기에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 신앙을 주변에서 관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내시로서 그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영원히 배제되었을 것입니다(신명기 23:1). 내시는 유대교 개종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는 얼마나 더 배척당했을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29절에서 "가서 이 병거에 올라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병거에 다가가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는 것을 듣고 간단히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을 병거에 초대합니다.

3.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불이 타오르는 곳)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을 지필 필요도 없습니다. 친구, 동료, 가족으로 이루어진 당신의 관계망에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활동하고 계십니까? 누가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누가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까?

몇 년 전 위니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8장을 본문으로 주었고, 저는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을 원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원합니까?

설교가 끝난 후, 몇몇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페르입니다. 저는 이란 사람입니다. 저는 무슬림인데, 당신이 이슬람을 모욕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슬람을 모욕했나요?"

그는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말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페, 당신은 무슬림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당신과 저는 성경 속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대답하고 걸어갔습니다.

다음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산입니다. 이란 사람입니다. 무슬림이지만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재빨리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하는 도중에 그는 "잠깐만요. 15분 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 없지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후 예배 사이에 저는 매니토바 대학교의 수학 교수와 약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하산과 자퍼의 교수였습니다.

하산이 그날 교회에 있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하산이 그날 교회에 있었던 이유는 중국인 집주인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집주인은 그 교회에 다니며 그에게 사랑을 듬뿍 준 믿음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산은 예배 중에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을 느꼈기에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왔을 때, 그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주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 수학 교수는 그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페르시아어 목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산은 교회에 다시 왔고 모국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어와 영어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산의 여정 중 작은 조각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훨씬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람은 이미 불었고, 불은 이미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2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3:7-8)

34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이 겪은 불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털 깎는 사람 앞의 어린 양처럼 침묵 속에 굴욕을 당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구절에 공감을 가졌을까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침묵 속에서 굴욕을 당하고, 거세되었습니다. 그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내시가 이보다 더 나은 구절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사야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저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내시에게 성경을 열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44-49절에서 빌립과 사도들에게 성경을 열어 주신 것처럼,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신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13-35절), 이제 빌립이 내시에게 성경을 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 전체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보여줍니다.

4.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경이 성취된 그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빌립과 내시는 두루마리를 펴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이 내시를 인도하여 이사야 56장 3-5절, 7절까지 이르게 했다고 믿습니다. 들어보십시오!

3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7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1)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을 통해 내시들은 예수님 나라에서 단순한 아들딸 이상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로 그들은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시들은 아들보다 더 나은 유산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 이름과 새 정체성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는 사라졌습니다!

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 (없음)

38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내시는 묻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없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성경과 빌립의 인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상처받고 소외감을 느끼며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복음은 지리적, 신체적, 언어적, 영적, 사회적, 인종적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모두 초대합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39 돌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들어 올려 아소도(옛 아스돗)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돌며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가이사랴는 서기 1세기(사진)에 이상적인 도시였습니다. 유대, 그리스, 로마 세계가 하나로 모인 웅장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유대에 있는 로마 정부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가이사랴에서 봉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메트로 밴쿠버와 같은 중심지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벨라쿨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내시를 홀로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집으로 돌아갑니다. 두 세대 후, 리옹의 이레네우스는 그의 저서 『이단에 맞서기』(서기 180년)에서 내시가 자신의 민족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 에티오피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유럽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중동과 아프리카 땅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내시는 복음 전도자 빌립 없이, 폐에는 성령의 바람이, 가슴에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는 채 앞으로 나아갑니다.

몇 주 전, 제 친구 폰 케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의 고향 접근 제한 국가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약 10년 전, 제 친구 PK는 동남아시아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행자 B를 만났습니다. B는 누구였을까요? 그의 첫 아홉 자녀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열 번째 자녀는 마을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B는 외딴 시골 마을의 무당이었습니다.

PK는 "B, 당신은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병원에서 당신과 당신 아이의 삶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PK와 B는 마을 병원으로 옮겨져 아픈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치유되었고, B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제 전직 무당이었던 그는 가족과 함께 마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B는 어떻게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PK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글을 읽으실 수 있나요?" PK가 물었습니다.

B: "네."

PK: "좋아요,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읽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실천할 수 있나요?"

B: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후, PK는 B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 B는 신앙 때문에 세 번이나 투옥되었는데, 마지막 투옥 때는 교도관에게 턱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몇몇 형제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러 갔습니다. 그는 치유되었지만, 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만난 후 무슨 일이 있었나요?" PK가 물었습니다.

B는 "우리 마을에서는 약 800명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5.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 그분이 바람을 계속 불게 하시고,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하십시오:

- (1)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 (2) 하루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 (3)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 (4)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지, 불이 어디서 타오르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십시오.
- (5) 그리고 그날을 누리십시오! 그 모험을 살아내십시오!

열방을 위한 기도

1.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교회에 회개와 부흥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2. 이 땅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3. 의로운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할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세요.